

예술가 경제적 지원, 시혜 아닌 문화투자로 봐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봉 500만원 시인의 현실

시인 A(34)씨는 최근 '시인 연봉은 500만원대'라는 조사 결과를 읽고 고개를 갸웃했다. A씨는 "강연과 과외 등 대외활동으로 지난해 연봉은 3000만원 수준이었다"며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와 결혼을 앞둔 B(29·여)씨도 "주위에서 왜 시인과 결혼하느냐고 물어남감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또 다른 예술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운이 좋은 일부에 속한다"며 "본업만으로 먹고 살기 힘든 '알바'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남긴 과제로 예술의 독립성이 좁아지만 창작 활동 지원책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시혜가 아닌 문화 강국을 향한 투자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15일 한국직업정보원의 '2016 한국의 직업 정보'에 따르면, 시인의 연봉은 평균 542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다음으로 연봉이 적은 수녀(1262만원)보다 두 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시인의 경우, 작품 자체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존 직업과 겸업하는 경우가 많다. A씨처럼 '자리를 잡은' 문인은 관련 활동으로 일정 수입을 올리지만,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예술계 독립성이 과제로 떠올랐지만, 이들의 생활고 역시 투자의 관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픽스타

문인들 대부분 알바로 생계 이어가 예술인 43% 지원금 정책 자체 몰라 "정책·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중요"

대개는 비예술활동으로 생계를 잇는 것이 예술계의 전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13만1332명의 개인 수입 가운데 예술·비예술 활동 수입 평균은 각각 1255만원과 1552만원이었다. 예술·비예술 활동 수입이 '없다'는 응답은 각각 36.3%와 42%로 많았다.

전업·겸업 예술인의 비율은 각각 50%였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 활동 직업 투

입 시간은 일주일 평균 14.3시간인 반면, 예술활동 외 직업 투입 시간은 두 배에 가까운 25.6시간이었다. 겸업 예술인이 예술 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로는 낮고(51.6%) 불규칙한 소득(31.4%)이 꼽혔다. 1년 이상 예술 활동을 포기한 '예술 경력 단절' 경험자는 15.9%로, 이 중 1년간 단절된 응답자는 42.5%였다. 5년 이상 장기적 단절자도 1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기업·개인 지원금 수혜 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19%만 있었다고 대답했다. 평균 지원 금액은 중앙·지방자치단체가 1101만원, 공공기관이 916만원, 기업 884만원, 개인 627만원 순이었다. 반면 지원금 수혜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43%가 지원금 정책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지원이 불필요

하다거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8.4%와 17.6%에 머물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술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예술계에서는 정부의 예술 진흥 정책을 현실화하고 경제적인 지원 역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흥경한 미술평론가는 "예술이 지닌 의미와 영향력을 이해하는 이라면, 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잘 알 것"이라며 "경제적 지원은 생존의 위기에 놓인 예술가들에게 기회적·생산적으로 가장 적절한 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강국이 되려면 '투자'라는 개념이 합당한데,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 현장과의 조화와 호흡이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은 예술가까지는 아니어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마인드를 지녀야하고,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의식이 남루하면 배품으로 착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구조 역시 과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임원을 임명해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며 "관련법 대상에서 이들 기관을 예외로 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범종기자 joker@metroseoul.co.kr

서울시 '개인파산' 등 가계부채 1.7조 면책 지원

5년 동안 4300여 명 구제

김모 씨는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기계대여업을 시작했지만, 거액처 부도와 이로 인한 빚더미에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 등을 전전하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은 김 씨는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지원받아 채무를 면책했다. 센터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연계서비스도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가계부채의 늪에 빠진 4300여명을 구했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터는 2013년 개소 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 70억원의 면책을 지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과도한 부채로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파산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였을 때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센터의 면책지원율은 4307명 중 96%(4137명)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170명)는 개인회생을 거쳤다.

시는 2013년 122명, 2014년 651명, 2015년 1010명, 2016년 1081명, 2017년 1083

명, 2018년 360명의 면책을 지원했다.

시가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 1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사람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사람들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60대 이상이 42%로 집계됐다. 50대(30%)까지 포함할 경우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의 70% 이상이 장·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 채무조정지원뿐만 아니라 재무상담,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 hki1@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17~20일 대학로서 거리공연

서울 종로구는 오는 17~20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소나무길에서 '2018 D.FESTA 대학로거리공연축제'를 연다. 축제는 39개팀 220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한 가운데 본행사, 초청공연, 협력페스티벌, 부대행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모자를 직접 만들어보는 '어린이체험 워크숍', 대형인형 놀이인 '봄날의 산책' 등 5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놀이기구 타는 꼬마스님들

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석가탄신일을 일주일 앞둔 1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조계사 '단기 출가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들이

/연합뉴스

서울시

채용 전제 '뉴딜 일자리' 청년 인재 315명 모집

서울시가 민간기업 채용을 전제로 구직자를 모집해 채용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16일부터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 일자리는 기업협회가 회원사를 중심으로 정규직 채용 수요를 미리 파악한 후 적합한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 약 2개월간 모집분야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기업과 교육생을 연결하고,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마케팅 ▲리뷰마케팅 ▲ICT ▲방송 ▲인적자원개발 등 5개 직군 11개 분야이며, 총 315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2~3개월간 무료로 교육을 받고, 9월부터 3개월 동안 인턴을 하게 된다. 인턴 기간 중에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해 월 195만원이 지급된다. /김현정 기자



마포구

이웃과 공생 '나눔이웃' 실천

서울 마포구는 주민들이 소모임을 구성해 복지 사업을 직접 기획·실행하는 '2018 나눔이웃'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나눔이웃은 동별 5명 이상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소모임을 형성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말벗이 돼 주거나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동주민센터는 주민 모임 결성을 돕고 활동 준비와 진행과정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한다. /김현정 기자